

진각종이 '불상 없는 종단' '재가 스승 종단'의 표지를 떼어내는 획기적인 변화를 시도한다. 이는 무상진리와 재가 스승으로 기존 종단과 차별성을 부각했던 그간의 정체성을 다시 정립한다는 점에서 한국불교의 종단사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진각종의 변화 시도는 형상불인 불상이 전혀 없는 전통을 바꾸는 데서 시작된다. 근본도량인 심인당을 비롯해 모든 전각에는 일반적인 사찰과 달리 불상을 모시지 않은 것이 그동안의 전통이지만, 납골당·연수시설 등의 특별한 장소에 불상을 봉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납골당이나 연수시설 등은 직접적인 신앙이 행해지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방편적으로 불상을 봉안하는 문제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진각종은 이를 '유자진언(음파나 반메춤)'을 법당의 본존으로 하는 형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 한정하고 있다. 진각종은 재가 스승으로 구성되어 있는 승단에 출가수도승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마련한다. "출가승 제도를 유지하라"는 회당 대종사의 유법을 다시 되살려 종풍을 새롭게 세우기 위한 묘책이다. 현재의 출가수

진각종 정체성 재정립

출가승 배출·불상 봉안...다음달 법 개정

여성승 역할 강화·통리원 집행부 겸직폐지

도승을 승단의 일원으로 인정해 수행품도를 진작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불상 봉안과 출가수도승 제도 도입 문제는 종단의 정체성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종단내 반대 여론도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회당 대종사의 유법을 되살려 종단의 정체성을 바로 세운다'는 취지에 대해 승단내에서도 상당수 공감하는 분위기가 있다.

효암 통리원장이 정체성과 종단 대계(大計)를 고민하고 바로 세워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해 온 점은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쳐 왔다는 것이 통리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진각종은 4월 21일 열리

는 정기 중앙총회에 이 사안을 포함한 종현·종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진각종은 여성 승승의 역할 증대, 통리원 집행부의 겸직제 폐지 등을 통해 합리적인 종단운영에 나선다.

진각종은 3월 중순 심법정 전수대구 선륜심인당을 교육원 산하의 진각대 교수로 임용했다. 선출직에는 전수들이 뽑힌 적은 있지만 중앙기관의 임명직에 진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일은 진각종 내에서 '의미 있는 인사'로 호평을 얻고 있고, 나아가 전수들의 역할 증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지고 있

다. 심인당 등 교화 일선에서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중앙에서의 역할도 높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통리원 집행부는 앞으로도 전수들이 필요한 자리에는 언제든지 전수들을 기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통리원 부장급 집행부의 심인당 주교 겸직제도 폐지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중앙종무기관의 전문성을 살려 종무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진각종은 지역교구정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시행한 직무스승제와 더불어 종단 조직 효율화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진각종의 한 관계자는 "향후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종단 대계를 세워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 종조 회당 대종사님의 유법을 계승·발전시키고 종단의 정체성을 재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아사리과정 스승 15명 이수

진각종 스승을 대상으로 한 최고의 교육과정인 제8기 아사리과정 수료식이 3월 18일 서울 총인원 무진법전전에서 열렸다. 2년간 진행된 과정에서 15명의 정사·전수가 수료했다.

진각종 교육원장 혜정 정사는 "아사리과정을 수료한 스승님들은 밀교의 최고 스승인 아사리가 됐다"며 "진각종은 회당 대종사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수행과 교화에 앞장서며 후학의 사표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진각종은 이날 11명의 스승이 입학한 가운데 제7기 심법과정 입학식을 봉행했다.

종단소식

北 영통사 기와 6차 지원

천태종 나누며나뉘기운동본부(총재 윤익)는 3월 29일 개성 영통사 복원용 기와 1만3천여장과 단청용 염료 300kg 등 6차분을 전달했다.

이번 방북에는 사무총장 무원 스님(천태종 사회부장)을 단장으로 18톤 트럭 8대 등 11대의 차량이 동행했다. 이로써 나누며나뉘기운동본부는 북측과 약속했던 46만장의 기와 지원을 완료했다.

정사 정복 한복으로 교체

총지종(통리원장 우승)은 정사들의 정복을 현재의 양복에서 황토색 개량한복으로 교체한다. 새로 제정된 정복은 4월 20-22일 열리는 스승강공 이후부터 착용하게 된다. 정복은 불공 때 법의 속에 입거나 일상생활에서 착용하는 옷이다.

그동안 총지종 정사들은 법의 안에 양복을 입거나 검은색 개량한복을 입어 왔다. 이에 따라 정복을 통일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총지종은 정복을 새로 제정함에 따라 스승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밀교종단의 이미지를 새롭게 부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3회 신행수기 공모

진각종 통리원은 6월 14일까지 신행수기를 공모한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신행수기 공모는 당

체법문, 신행일기, 진각종 스승과 얽힌 일화 등의 이야기를 200자 원고지 30장 내외로 정려대 문화사회부로 접수하면 된다. 최우수작 1편, 우수작 2편, 가작 3편을 선정하는 당선작은 7월 15일 발표된다.

진각종 통리원은 또 문화사회부 주관으로 '제3회 등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개인소품등·장엄등 등 작품과 단체행진등 부문으로 나누어 실시된다. 개인 부문은 모두 참여가 가능하며, 5월 1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최우수작 1명, 우수작 2명, 장려작 3명을 선정하며, 당선작에는 상금과 기념품이 주어진다. (02)913-0753

대인사에 사리탑 준공



미륵종(총무원장 송정)은 3월 21일 양산 대인사에서 사리탑 준공법회를 봉행했다.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법회에서 종정 연화 스님은 "사리탑 불사의 공덕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이타행으로 보답할 것"을 당부했다. 가로 세로 각 3.8m, 높이 9m 크기의 5층 석탑인 사리탑에는 사경으로 조성한 법화경 5백여권과 사리 14과가 봉안됐다.



삼론종은 3월 25일 충주 중앙탑 광장에서 국운융창과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만등불사 대법회를 열었다.

조계종 신도교육 교재 '불교사의 이해' 발간

조계종이 신도교육 교재 편찬에 막바지 피치를 올리고 있다.

포교원(원장 도영)은 인도·중국·한국을 중심으로 2500년 불교사를 정리한 <불교사의 이해>를 3월 22일 발간했다. 신도전문교육 필수과목 중 불교역사의 교재로 3년여 작업 끝에 나온 것이다. 포교원은 불교교리 교재인 <불교의 이해와 신행>을 지난 달 출간한 바 있고, 역시 전문교육 필수과목인 <불교문화>도 올 하반기 내로 펴낼 계획이다. 신도교육 필수교재 편찬이 마무리되면

지난 2001년 신도기본교육 전면시행 선포식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된 신도교육도 기본적인 체계를 갖추게 될 전망이다.

<불교사의 이해>는 신도전문교육기관인 전국 50여 개 불교대학의 교재로 나온 것이지만 기존 불교 역사서의 달리 철저하게 신도들의 눈높이에 맞춰 서술함으로써 일반인들도 불교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개관해 볼 수 있도록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인도-중국-한국을 중심으로 했

지만 한국불교사에 많은 부분을 할애했고, 특히 한국 선불교의 성립과 발전 과정에 초점을 맞췄다. 불교 전과 경로를 따라 스리랑카 미얀마 타이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등 남방불교와 티베트 네팔 몽고 일본 대만 등 북방불교의 흐름을 개관했음은 물론 유럽과 미국의 불교에 대해서도 약속했다.

포교연구실장 진명 스님은 "한국 불교의 특성인 선사상의 성립과 발전과정도 중요하게 보고 정리했다"고 밝혔다.

권형진 기자

분원종 생전예수재 입재

분원종(총무원장 대화)은 3월 23일 서울 평창동 연화정사에서 생전예수재 입재식 및 사리탑 제막식을 열었다. 분원종 총무원장 대화 스님, 중앙총회 의장 대운 스님을 비롯해 종진, 집행부 스님들과 전국 1백여 사찰 신도 6백여명이 동참했다. 이번 생전예수재는 7회에 걸쳐 49일 동안 열린다.

분원종 총무원장 대화 스님은 "생전예수재는 개인의 업장을 소멸하는 소극적 불사가 아니라 사회가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하는데 큰 취지가 있다"며 "선업을 쌓고 선근을 심



3월23일 서울 연화정사에서 열린 분원종 생전예수재. 대중들이 탑돌이를 하고 있다.

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불자들이 앞장서야 할 것"이라

박봉영 기자

삼론종 국태민안 만등 밝혀

흐란한 정국의 안정과 국민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1만등이 충주 중앙탑 광장에 걸렸다.

삼론종(총무원장 혜광)은 3월 25일 충주시 거금면 탑평리 중앙탑 광장에서 '국운융창 국태민안 기원 만등불사 대법회'를 봉행했다.

1천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법회. 발원문 낭독, 연등 점화, 영산재 등으로 진행된 이날 법회에서 종정 석봉 스님은 "요즘처럼 혼란스러운 때에 불교를 비롯한 종교계가 중심을 잡고 중생을 제도해 나아가 국운융창의 기운이 퍼져 나갈

수 있다"며 "한 생각 바꾸어 공업종 생업을 자각하는 참사람이 되라"고 법문을 내렸다. 이에 앞서 총무원장 혜광 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이번 법회를 계기로 모든 종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화합하여 종단발전을 이루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종정 석봉 스님은 총무원장 혜광 스님, 중앙총회 의장 대운 스님을 비롯해 사정원장 정봉 스님, 재정원장 청봉 스님, 수선원장 오봉 스님 등 지난 1월 새로 구성된 중앙종무기관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박봉영 기자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립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 중독, 나병, 알콜중독 등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진강회복, 출혈성, 질염, 신진대사 촉진, 비위약약 뇌 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정지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救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몸게 精進하시우기를 祈願 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難題에 마음으로 계공해 드리오고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 (02) 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검정필(분석 51160-150)

심마당 長腦 山蔘

육법등 (六法燈)

의장등록 제 2002-33243호

용인사(서울 광진구) 대웅전에 장엄된 육법등

특징

- 부처님께서 보리수아래서 성도 하신후 49년간 설법을 하시기에 등을 49개 밝히니 그 모양이 마치 보리수 나뭇잎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음
- 더러운 곳에서 물들지 않고 항상 깨끗함을 나타내는 영꽃모양을 만들어 등을 밝힘
- 연등의 밝기를 자유로이 조절하여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음
- 등의 재질을 신주 및 이크릴로 제작하여 변형 및 변색이 되지 않음

활용 범위

- 법당내 상단 부처님전 조영 및 장엄등
- 지장단 영가천도를 위한 49등 및 각종 제사단에 활용
- 각단의 인등 및 장엄 등으로 활용 가능함
- 예식장의 주례단 단상의 장엄 및 촛불 대용으로 활용가능
- 장례 예식장의 영가단에 회향대신 장엄 가능함
- 등 장엄이 필요한 각 단상 및 기타장소

(주)동원전기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포천읍 설운리 290-1 전화 : 031)541-1417 / 팩스 : 031)541-1419 출판 및 대법점 모집